



“악역 아닌 ‘복합적 캐릭터’ 오랜만에 즐거운 경험이었다”



장성철 역
김의성

“모범택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장성철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긴장 풀면 안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나쁜 놈이 되지 않고 잘 끝나서 좋았어요. (웃음)
다양한 작품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김의성(55)이기에 ‘반전’을 의심한 시청자도 있었지만 장성철은 끝까지 정의 구현에 온몸을 바쳤다.
인기리에 종영한 SBS TV 금토극 ‘모범택시’에서 무지개 운수 대표 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파랑새 재단의 대표로 사적 복수 대행 작전을 이끌며 악역 처단한 장성철로 출연했던 김의성을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6개월 열심히 일했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드라마라 보람도 컸다”며 “오랜만에 악역을 하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고 캐릭터가 복합적이라 응원을 많이 받아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 “김도기(이재훈 분)와 장성철의 복수가 이뤄지면서 무지개 운수가 해체됐다. 하지만 결국 ‘세상 돌아가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모이는 장면으로 끝난다. 엔딩이 참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의성은 장성철 캐릭터에 대해서도 애정을 표

현했다.
“선역과 악역을 구분해 연기하지는 않지만, 욕망이 큰 인물을 연기하는 건 배우에게 축복이죠. 연기할 때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재밌고요. 장성철의 경우는 ‘이중성’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밤과 낮이 다른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두 가지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떤 얼굴이 진짜인지, 하나가 진짜면 다른 하나는 거짓인지 고민하면서 연기했습니다. 두 얼굴의 분열 자체가 이 사람의 특징인데, 두 가지 다 진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어 “눈물을 흘리며 범죄 피해자들을 돕지만 범죄자들에게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사적 제재를 하는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었”다며 “자극적인 장면들도 있었지만 표현보다는 주제가 더 위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19세 이상 시청가로서 성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오락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정를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둔 ‘모범택시’였기에 시즌2 제작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의성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제작자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웃으며 “이렇게 훌륭한 세계관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또 사회를 다룰 이야기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즌1에 출연했던 배우로서 작품의 연속성에 대한 책임감은 있다”며 “시즌2를 한

다면 멤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다”고 덧붙였다.
평소 사회적 문제에 대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왔고, MBC TV ‘스트레이트’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약했던 김의성은 ‘모범택시’의 메시지에 대해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시청자들의 요구에 반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이 충분하냐’에 대한 의문부호를 많이 달아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이 공평한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네요. 그 울림을 듣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부분을 겪거나 아무런 덕분도 ‘모범택시’가 큰 응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어요. 촬영할 때 힘도 많이 났고요.”
그는 이어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불공정과 불평등이 화두가 된 데 대해 “기성세대로서 미안해야 할 영역이다. 새로운 세대들의 기회가 적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식견이 짧아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불만만 가지지도 말고, 최소한 하루하루는 행복했으면 한다”고 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청춘스타들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의성은 “어떤 역할이 올지 기대하고 즐기려는 편”이라며 “현장에 있는 게 좋다. 현장에서 모니터링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광석이 김정호를...’

광주MBC·대구MBC 라디오방송
4일 12시 펭귄마을 오픈스튜디오

광주와 대구를 대표하는 가수 김정호와 김광석을 조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시민과 만난다.
광주MBC는 대구MBC와 공동으로 오는 4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오픈스튜디오에서 ‘김광석이 김정호를 만났을 때’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1990년대 1000여회 이상의 공연을 하며 추억 속에 남아있는 김광석과 포크음악을 대중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정호의 명곡을 조명한.
이번 방송에는 가수 홍경민과 뮤지컬 ‘김정호’에서 열연한 가수 기드온, ‘김광석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지희,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와 박성서가 출연한다.
이 밖에도 블루스 밴드 마인드바디앤소울 등 광주와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가수들도 등장한다.
아울러 이용섭 광주시장이 출연해 광주·대구·아시아게임 공동유치, 내륙철도 구축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화 연결을 통해 해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계획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귀빈 PD는 “이번 방송은 광주의 김정호와 대구의 김광석 음악을 통해 두 지역이 하나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은 유튜브 ‘광주보라’와 대구MBC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상순, 첫 솔로 미니앨범 4일 음원사이트 통해 공개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이상순(사진)이 자신의 이름을 달고 첫 솔로 EP(미니앨범)를 낸다. 지난달 31일 소속사 에스티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상순은 오는 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EP ‘이상순(Leesangsoon)’을 공개한다.
밴드 롤러코스터 멤버였고 김동률과 ‘배란다 프로젝트’로도 활동한 그가 솔로 명의로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디지털 싱글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2010년 배란다 프로젝트의 ‘데이 오프’(Day off) 이후 11년 만에 발표하는 앨범이기도 하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인 ‘너와 너의’를 비롯해 느긋한 템포의 잔잔한 노래 네 곡을 실었다. 보너스 트랙 한 곡을 더해 다섯 곡을 담은 아날로그 음반으로도 발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기영 감독 ‘죽어도 좋은 경험’ 개봉

미개봉 유작·윤여정 주연...리마스터링 복원 작업 거쳐 7월 공개

김기영 감독의 미개봉 유작이자 윤여정이 주연한 영화 ‘죽어도 좋은 경험:천사여 약녀가 되라’가 30여 년 만에 정식 개봉을 확정했다.
배급사 블루필름웍스는 김 감독의 1990년 작 ‘죽어도 좋은 경험’(사진)을 오는 7월 개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죽어도 좋은 경험’은 남편의 실수로 아들을 잃은 여정(윤여정)과 남편의 외도로 억울하게 이혼당한 명자(이탐미)가 서로의 남편을 죽이기로 하고 복수를 벌이는 이야기다.
김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서는 두 여성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투쟁을 벌인다면, ‘죽어도 좋은

경험’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들의 연대라는 새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윤여정이 ‘화녀’(1971)와 ‘충녀’(1972) 이후 세 번째로 주연을 맡은 김 감독의 작품이다. 윤여정은 지난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의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데뷔작을 함께 한 김기영 감독에게 영광을 돌린 바 있다.
‘죽어도 좋은 경험’은 완성된 뒤에도 김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사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4K 리마스터링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